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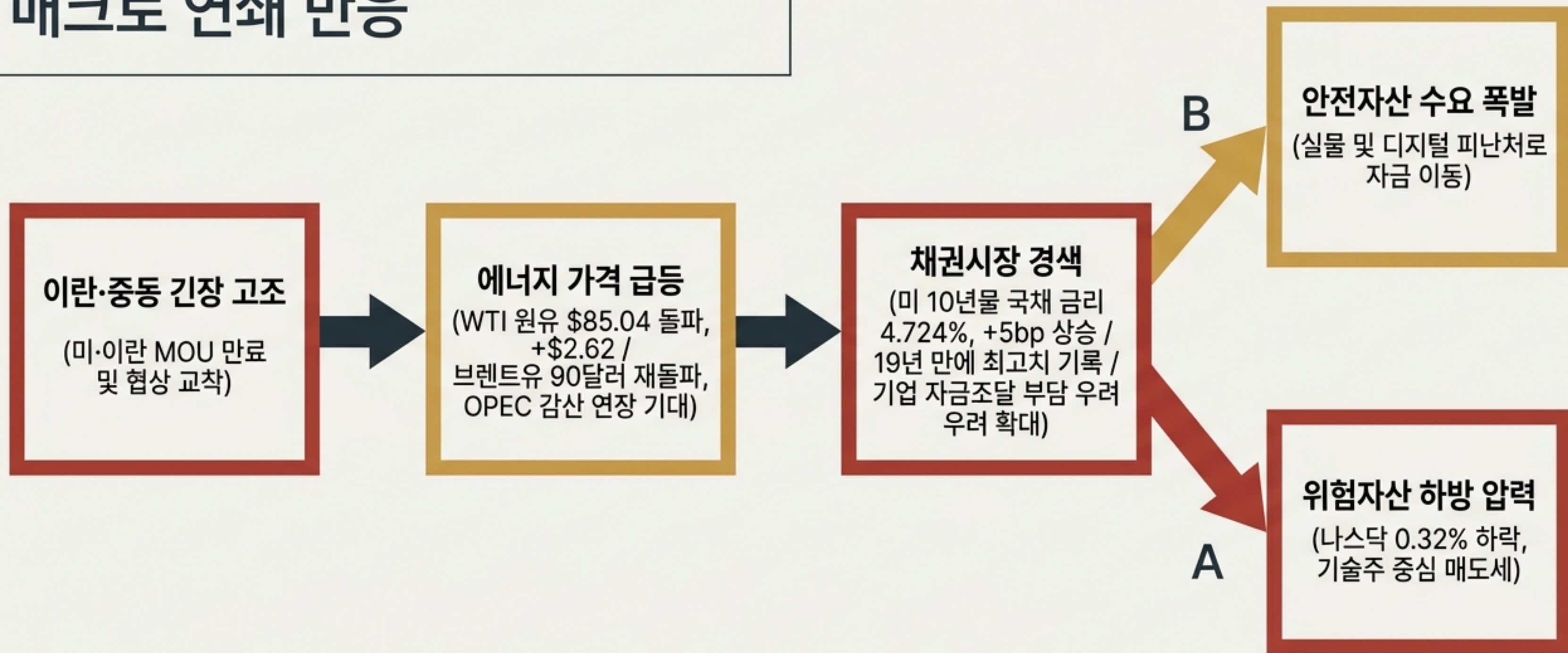
거시적 압박과 아시아의 방어력: 글로벌 시장 브리핑

[유가·금리 상승 압박]

[안전자산 선호 뚜렷]

[아시아 기술주 견인]

중동발 리스크가 촉발한 매크로 연쇄 반응



안전자산 선호 뚜렷: 달러 약세 속 대체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금 (XAU)

\$500 (+\$18)

안전자산 선호 심리 지속

비트코인 (BTC)

\$67,350 (+\$1,240)

ETF 순유입 지속에 따른 디지털 자산 수요 확대

달러 인덱스	0.5 (-0.32) 유로 강세에 따른 상대적 약세 ↘
EUR/USD	1.1790 (+0.0031) ECB 금리 경로 재평가 ↗
원/달러 환율	₩1,411.52 (-5.30) 달러 약세 맞물린 원화 강세 ↘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원자재(금)와 암호화폐로
글로벌 헷지 자금이 집중되는 이례적 디커플링 현상 발생.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미국 하락세를 방어하는 아시아와 유럽

국채 금리·유가 압박

S&P 500: 보합 (7,785.76)
나스닥: -0.32% 하락

평화협상 기대 & 방산주 랠리

DAX: 24,998.00 (+0.80%)
FTSE 100: 10,556.00 (+0.79%)
STOXX 50: 5,520.00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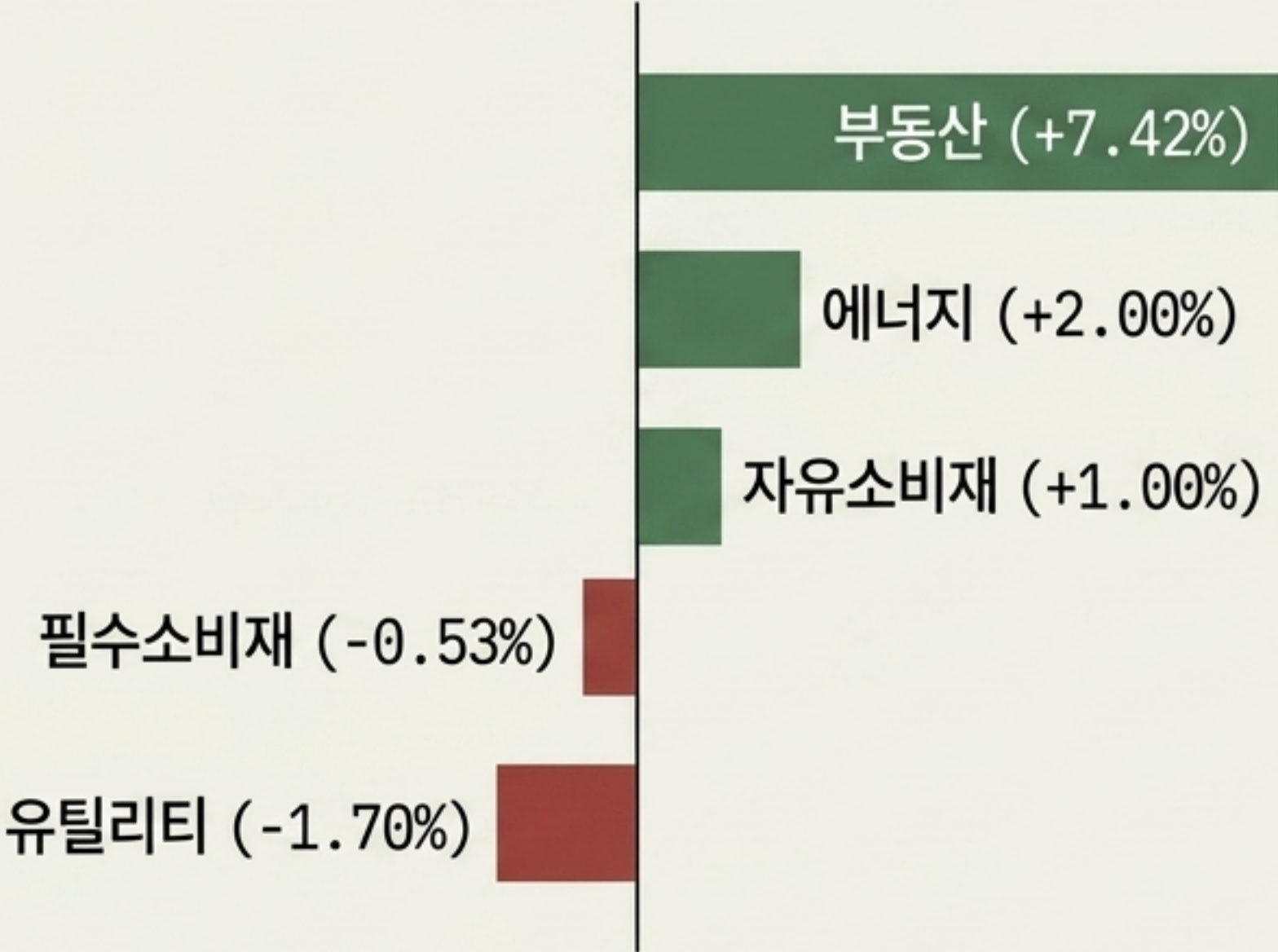
기술주·수출주 강세가 침체 우려 상쇄

항생: 22,944.00 (+1.59%)
선전성분: 10,890.00 (+0.62%)
상하이: 3,215.00 (+0.45%) / 닛케이 225: 56,734.00
(+0.46%) / ASX 200: 8,555.00 (+0.52%)

유가와 국채 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과 달리, 아시아는 기술주 주도로,
유럽은 방산주 주도로 글로벌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 중.

미국 증시 진단: 방어적 순환매와 서학개미의 레버리지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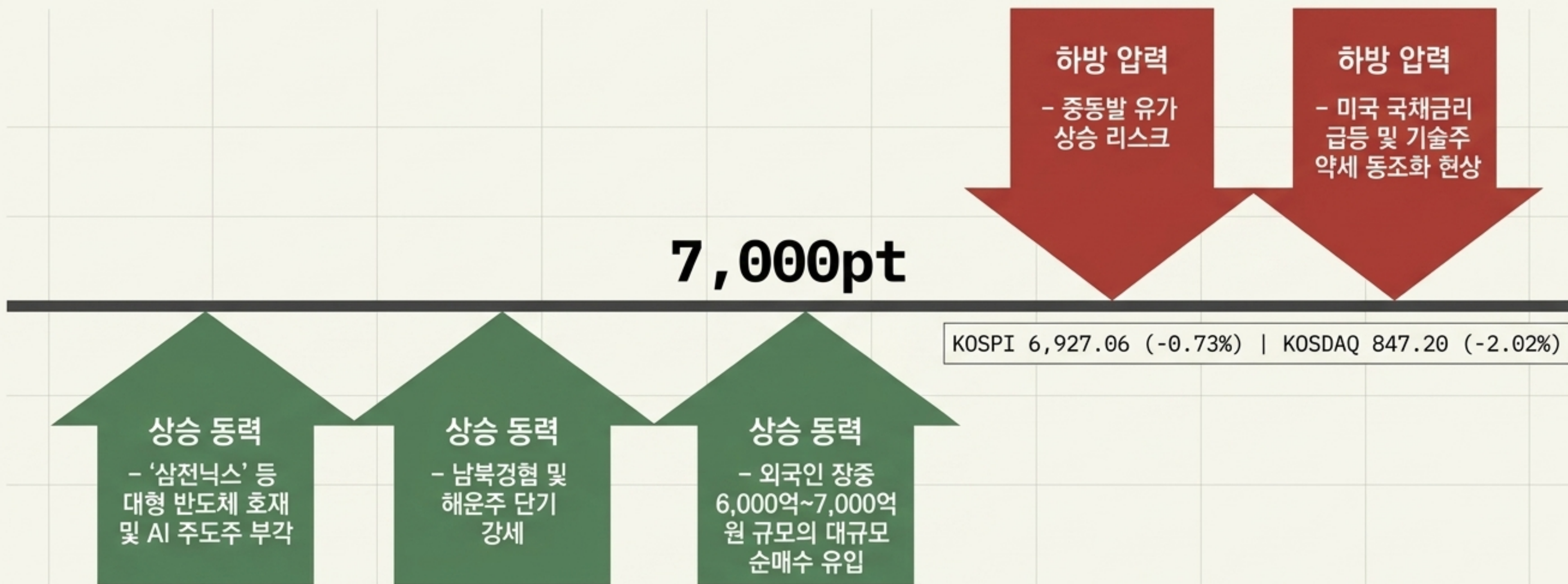
섹터별 성과 (Spectrum)



서학개미 경고등

현상	한국 투자자들의 3배 레버리지 및 ADR 쏠림 현상 심화.
월가 시각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단기 ‘버블 증상’에 대한 강한 경고 제기.
시장 변화	12월부터 나스닥 하루 23시간 거래 도입 예정으로 변동성 추가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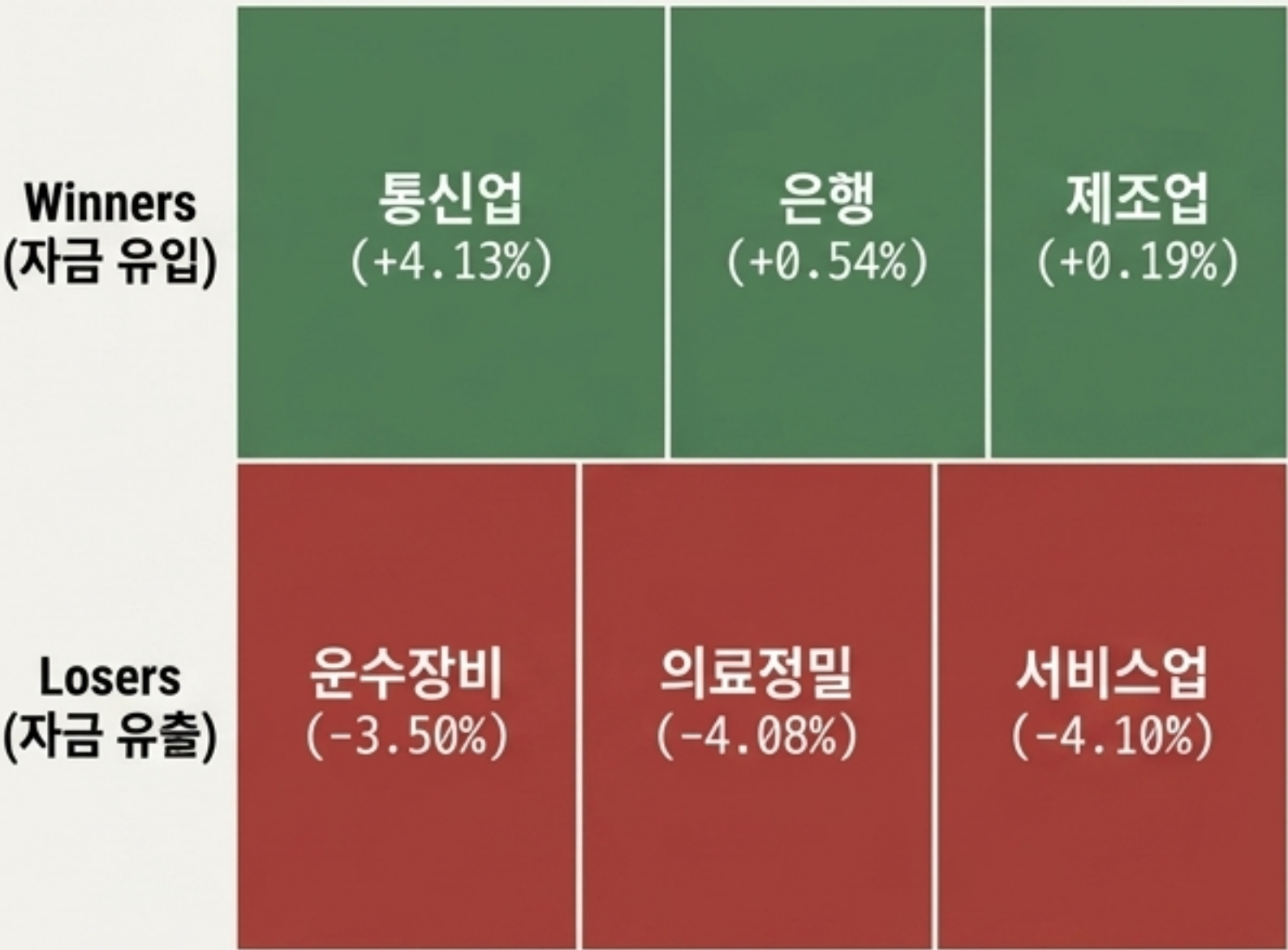
코스피 7,000선 공방전: 수급 호재와 매크로 악재의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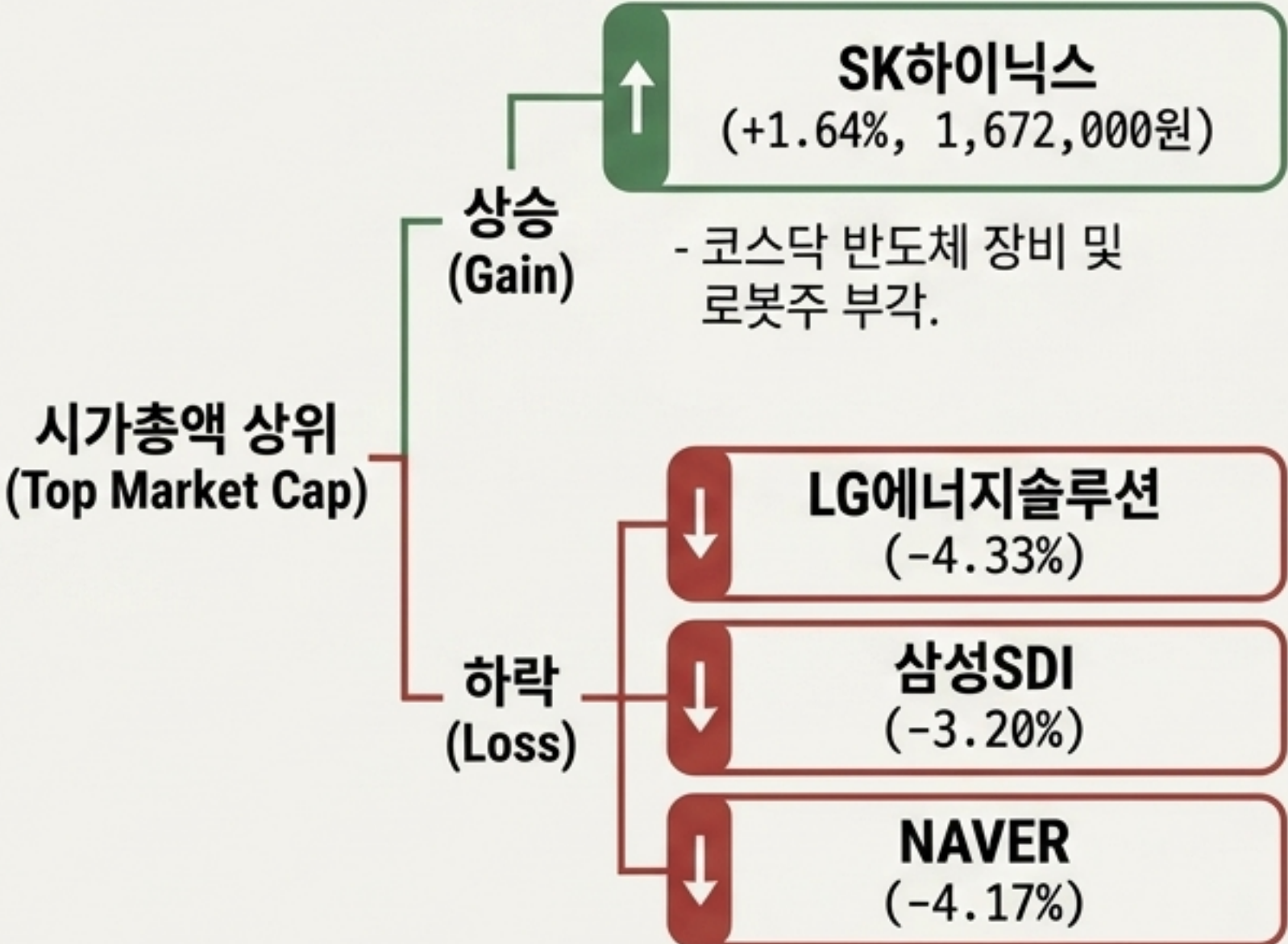
장종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훈풍으로 7,100선까지 회복하며 안착을 시도했으나, 대외 매크로 변동성(유가·금리) 압박에 밀려 결국 장종 하락 전환.

국내 섹터 자금 흐름: 철저한 방어주 쏠림과 대형주 엇갈림

국내 섹터별 자금 흐름 (Sector Fund Flow)



상위 대형주 엇갈림 (Top Cap Divergence)



수급이 철저하게 통신·은행 등 방어주와 특정 반도체 종목으로만 압축되는 전형적인 불안 장세 구조.

단기 변동성 분수령: 미국 내수 펀더멘털 확인의 주간

8/18 (오늘)

8/20 (목)

HD (Home Depot) 실적 발표
소비 심리 및 주택 시장 파급력 확인

WMT (Walmart) 실적 발표
미국 광범위한 내수 건전성 바로미터

현재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는 거시적 압박 속에서, 소매 유통업체 실적을 통해 미국의 실질 내수 펀더멘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짙은 관망세가 유지될 전망.

실행 전략: 거시적 변동성을 방어하는 3대 핵심 포지셔닝



매크로 방어 (Macro Positioning)

상황 :
미 금리·유가 상승에 따른 나스닥 및 코스피 하방 압력 심화.

액션 :
단기적으로 기술주 비중을 축소하고, 통신/은행 등 방어주, 금, 비트코인 포지션 확대 권고.



환율 및 채권 (FX & Fixed Income)

상황 :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강세(1,411원대) 지속.

액션 :
현재를 원화·달러 헤지의 최적기로 활용하며,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해외채권 매수 기회 탐색.



주식 수급 집중 (Equity Focus)

상황 :
아시아 기술주가 글로벌 경기를 방어하는 디커플링 국면.

액션 :
HD·WMT 실적 발표 전후의 변동성을 활용, KOSPI 대형주(반도체) 및 해운주 저점 매수 및 추격 기회 확보.